오늘의 날씨와 생활

12월 9일 월요일 음 11월 13일 (5물)

기상정보

구름 많다가 맑음

제주도는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아침 기온은 5~8℃, 낮 기온은 14~15℃로 예상된다. 밤 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클 것으로 전망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오 전	강 수 확 률	오 후
20%	제 주	0%
20%	성 산	0%
20%	고 산	0%
20%	서귀포	0%

	해뜸 07:26	달뜸 15:37
	해짐 17:26	달짐 04:10
물때	만조 09:13	간조 02:51
	20:56	15:28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구름 많음	8/17℃
모레	구름 많음	11/17℃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감기가능지수
주의	보통

월드뉴스

'시위도 구경거리?'… 홍콩서 관광상품 등장

여행사 "안전은 책임 못 져"

지난 6월 초부터 시작된 홍콩의 민주화 요구 시위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홍콩에서 '시위 관광' 상품이 등장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8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홍콩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클 창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 '홍콩 프리 투어'에서 홍콩 시위 현장을 방문하는 '시위 투어(Protest Tour)'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들어가면 '누구나 환영하지만, 자신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경고를 읽을 수 있다. 이 '시위 관광'은 홍콩 정부가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복면금지법을 발표한 지난 10월 4일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이뤄진 시위 관광에서 마이클 창은 관광객들을 데리고 코즈웨이베이, 침사추이, 센트럴 등 홍콩 시위의 중심지를 방문해 관광객들이 직접 시위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홍콩의 '시위 관광' 상품을 알리는 온라인 사이트. 홍콩 프리 투어. 연합뉴스

이 시위 관광에 참여하는 사람은 대부분 미국인이나 영국인이지만, 가끔 홍콩인이 참여할 때도 있다고 한다. 영국에서 온 지리 교사 앤디 존스는 "영국 정부는 홍콩에 가면 시위 현장을 가능한 한 피할 것을 당부하지만, 나는 홍콩 시위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다"며 "태어나서 처음으로 최루탄 연기를 눈과 목구멍,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의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이 용 곤 편집국장 김기현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hl@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특별기고

이 한 영
(주)숨비 대표이사·발명가

발명도 꿰어야 보배다

2018년 국내 특허 출원건수는 20만 9992건으로 G20 국가중 중국, 일본, 미국에 이어 4번째로 많으며, 이 건수를 실제 국내총생산 대비, 인구수 대비 출원건수로 환산해 보면 부동의 세계 1위이다.

발명은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한 요소로서 아직까지 없던 기술이나 새로운 물건을 생각해 만들어 내는 행위를 뜻하며, 오늘날의 발명은 특허제도라는 법체계 속에서 그 소유와 권리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보호되고 있다.

특허 출원후 등록을 위한 기본적인 평가 항목으로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고도의 창의적 기술이 반영된 것인지 그리고 특히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높은지를 심사한다. 하지만 Invention(발명)의 어원인 라틴어 Inventio(생각이 떠오르다)에서도 보듯이 발명은 생각의 차원이며, 이 생각이 현실에서 사업화 되는데에는 또 다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조사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한 조사에 의하면 아쉽게도 우리나라 특허 사업화률은 7%에 그친다고 한다. 과거 미국의 경우도, 1970년대에는 특허기술 사업화률이 5%에 지나지 않던 것이 1980년 '바이돌 법'을 제정해 정부가 나서서 개발된 특허기술 활용을 독려하자, 1990년대에는 특허기술의 사업화률이 20%로 급증했다고 한다. 이는 발명의 사업화에 국가 정책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필자도 청정 제주의 물인 삼다수가 경쟁제품의 가격 경쟁에 밀려 점점 시장 점유률이 낮아지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프랑스의 에비앙 생수처럼 스토리텔링을 통해 단순히 깨끗한 제주물이 아닌 부가가치를 높인 상품으로 개발하면 어떨까 고심하던 중 삼다수 물을 활용한 물티슈 개발을 하려 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물티슈의 특성상 수분 함유률이 높아 쉽게 부패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첨가물이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시행착오 끝에 물티슈에서 물을 분리 진공포장해 아무런 첨가물 없이 근본적으로 부패의 원인을 차단한 제품을 발명 특허등록까지 마쳤다.

하지만 일개 중소기업이 기천만원이 들어가는 발명의 시제품을 만들기란 어지간한 경영인의 담력과 발명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힘들다. 때마침 제주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의 우수특허시제품지원사업을 알게 되었고, 지원을 받아 감사하게도 사장될뻔한 당사의 특허가 시제품으로 개발됐다. 막상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현실화하니 이론상으로는 발견하지 못한 미흡한 점을 찾을 수 있었고 개선점을 연구해 보완하게 됐다.

이론과 현실은 엄연히 다르다. 이론인 특허가 현실인 사업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시제품(prototype)이라는 단계를 거쳐 설계의 오류와 구현 가능성 그리고 성능을 평가해야 하며 실사용자 입장에서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흡한 점의 보완과 점검이 되어야 비로소 안전한 사업화의 첫발을 내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도 도의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적 배려를 통해 도내 많은 발명이 장롱특허로 전락하지 않고 사업화를 통해 꿰어져 보배로 빛나게 될 날을 기대해 본다.

열린마당

옥토버페스트에 울려퍼진 제주의 숨비소리

강 승 오
성산읍장

북미 최대의 독일 바이에른식 맥주 축제인 옥토버축제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제주해녀가 공식 초청을 받고 성산포해녀 20여 명이 참여하게 되었다.

축제에 초청받은 제주해녀들은 워털루에서 한인회가 주관하는 한국인의 날 기념행사장인 워털루 박물관을 찾아 교민과 현지인의 호응 속에서 해녀유물 전시회를 비롯한 기념공연을 가진 후 다음날 옥토버축제장을 찾았다. 옥토버축제의 꽃은 단연 퍼레이드였다. 세계 10여 개국에서 모인 2000여 명의 참가자가 행진에 나서는데 참가자들은 각국을 상징하는 다양한 의상과 소품, 꾸밈으로 행사장 도로변을 가득 메운 관객을 압도하였다.

성산리어촌계 소속의 해녀들도 영하를 맴도는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강인한 제주 어머니의 정신으로 소중이 하나만을 입고 태왁을 메어 서우젯소리를 부르며 때로는 숨비소리를 내며 키치너 거리를 활보하였다.

퍼레이드에 참가한 20여개 팀 중에서도 제주해녀가 가장 돋보이는 이유다. 제주의 어머니는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든 강했다. 제주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다. 퍼레이드 취재에 나선 각국의 언론들은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소중이를 입고 거리로 나선 제주해녀를 경쟁하듯 취재하는 모습을 인상 깊게 볼 수 있었다.

이번 제주해녀의 캐나다 방문을 통해 제주해녀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였고 서로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향후 제주해녀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미주와 유럽은 물론 동남아로 교류를 확대하고 제주해녀문화의 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과 해외마케팅을 통해 세계인이 주목하는 제주의 해녀문화를 소득과도 연계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할 것이다.

제주 전통문화상품, 호미를 잇는 잇템 되려면?

안 재 영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장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의 기세가 대단하다. 영상과 음악으로 우리 문화를 접한 외국인들은 그 안에 담겨진 우리의 생활, 물건, 한국어까지 관심을 넓혀가고 있다. 전통농기구인 호미가 아마존에서 농기구 판매 톱10에 오르는 특이한 상황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이미 세계 각지에서 한국산 제품은 각광을 받고 있다.

반도체와 휴대폰 등 최첨단 상품의 각축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매일 새로운 제품이 등장하고 서로가 최초임을 자랑한다. 그러나 전통문화는 전선에서 후방에 위치하고 있다. 새것을 개발할 필요성이 적다. 옛것을 지키고 계승하는 것이 가장 큰 소임이다.

하지만 전통문화가 동막골이 되어서는 안된다. 최전선의 상황을 모르고 함께 패망할 수는 없을 터, 끝나지 않을 전쟁에 힘을 보탤 필요는 있다. 우리는 전통문화와 물건들을 가볍게 여기고, 더욱 아름다워 보이는 타국의 그것들로 우리생활을 대체하여 왔다. 그동안의 호미처럼. 하지만 우리는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을 위해 새로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주에는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전통상품이 가득해 경쟁력이 충분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통문화 계승자들은 1인이 제작과 판매를 모두 담당하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제주 전통옹기를 제작하시는 분이 조달청의 업체 등록과 상품 기준을 작성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어 제주지방조달청 직원이 방문하여 등록과 작성을 도와드렸고 나라장터에 상품을 등록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수고로움이 판매와 연결되지 못하면 허사가 될 수 있다. 전통문화 상품은 해외출장이나 외국 손님이 방문할 때 선물로 제격이고, 홍보물품으로도 매일같이 신제품이 나오는 값싼 외국 전자제품보다는 좋지 않겠는가? 전통문화를 계승하시는 분들이 '독짓는 늙은이'가 되지 않도록.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제)州(주)리모델링
辛(신)一(일)祚(조)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붙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는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라실생 4년생
유라실생 3년생
감 평 3년생
천 혜 향 4년생
성전온주 4년생
황 금 향 4년생
하래조생 3년생
탱 자 묘 1년생, 수고 70전
한림종묘
010-3690-2453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영귤
• 한라봉 • 히로시마7호
• 궁천변이지
• 천전(가와다) 온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묘목 접수 판매(1년생 묘목 접수만 취급)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묘목
* 유라실생 1,2,3년생
* 레드향 (무독) 1,2,3년생
* 천혜향 (무독) 2,3년생
* 궁천 9년생, 1,2,5년생
* 궁천 변이지 1,2년생
* 하례조생 1,2년생
* 일남희 (제일 빠른 극조생) 6년생
* 한라봉 5,6년생
*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제주 18-2003-20-08
010-2699-2355